멍냥뉴스
동네방네

구독자 무료 가이드 · 3권 · 나눔판 1/2

강아지와 떠나는 여행 안전 가이드

출발 준비와 이동

출발 전 점검, 자동차·기차·버스·비행기, 숙소·식당·관광지

멍냥뉴스 동네방네 · dogdo209.com · 2026년판

시작하며

이 가이드 활용법

이 책은 어디로 가라고 권하는 여행 책자가 아니에요. 동반 가능한 숙소와 명소는 해마다 바뀌니까요. 오래 남는 건 확인하는 법이에요. 교통수단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 안과 물가에서 무엇을 조심할지, 길을 잃었을 때 무엇부터 할지를 담았어요.

> **나눔판 1/2 안내**
>
> 이 소책자는 『강아지와 떠나는 여행 안전 가이드』 전체판에서 주제별로 나눈 나눔판 1/2예요. 장 번호는 전체판 번호를 그대로 두었어요. 나머지 장은 나눔판 2/2 「여행지에서: 날씨·물놀이·분실·먹기·해외」 또는 전체판(여행안전_가이드북_3권.pdf)에서 볼 수 있어요.

1 출발 전 10분 점검

2 자동차

3 기차·버스·지하철

4 비행기

5 숙소·식당·관광지

+ 여행 짐 목록

+ 체형·장비 기록지

세 가지 원칙

1. **규정은 떠나기 전에, 공식 안내로.** 같은 KTX라도 운영사마다, 같은 비행기라도 항공사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 책의 수치는 출발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써 주세요.
2. **집에서 먼저 연습하기.** 여행에서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이유 대부분은 이동장, 하네스, 차가 처음이라서예요. 몇 주 전부터 짧게, 간식과 함께 익히게 해 주세요.
3. **장비는 보호자의 눈을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냉감 매트, 구명조끼, GPS가 있어도 차 안이나 물가, 더운 곳에 강아지를 혼자 두면 안전하지 않아요.

> **꼭 읽어 주세요**
>
> 이 가이드는 보호자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수의사의 진단·치료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저희는 제품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 특정 브랜드나 업체를 추천하거나 협찬받지 않아요. 교통·숙소·검역 규정은 자주 바뀌니 출발 전에 해당 기관과 업체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정보의 출처

각 장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관광공사 등)와 교통 운영사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더위·물놀이 안전은 미국수의사회(AVMA)와 미국켄넬클럽(AKC)의 보호자 안내를 함께 참고했어요. 자료 목록은 마지막 쪽에 있어요.

최신 소식 받기

지원금, 법·제도 변경, 안전 경보, 지역 반려견 행사처럼 바뀌는 소식은 **dogdo209.com**에 날짜와 출처를 밝혀 올려요. 1권 『강아지 관리 가이드북』, 2권 『들이기 전에 읽는 펫테크 가이드』도 함께 챙겨 보세요.

출발 전 10분 점검

여행 중 생기는 문제 대부분은 응급 상황이 아니에요. 집에 두고 온 접종 기록, 옛날 번호가 적힌 인식표, 그새 헐거워진 하네스 같은 것들이에요. 떠나기 일주일 전 10분이면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신원: 누가 찾아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나요?

- ☐ **동물등록 정보가 최신인가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에요. 이사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 **인식표를 달았나요?** 외출할 때는 보호자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다는 것이 법적 의무예요. 여행 중에는 연락이 잘 닿는 동행인 번호를 하나 더 적어 두면 좋아요.
- ☐ **최근 사진이 휴대폰에 있나요?** 옆모습 전신 한 장, 얼굴 정면 한 장, 털 무늬나 특징이 보이는 사진을 준비하세요. 잃어버렸을 때 공고와 전단에 바로 쓸 수 있어요.

서류: 꼭 챙길 것

- ☐ **광견병 등 예방접종 기록.** 기차·버스·항공에서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반려견 동반 음식점은 접종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을 제한해요.
- ☐ **먹는 약과 용량 메모, 다니는 동물병원 연락처.**
- ☐ **여행지 근처 24시 동물병원 이름과 번호.** 뒤쪽 **여행 비상 카드**에 숙소마다 하나씩 적어 두세요.

종이 사본은 가방에, 사진은 휴대폰 앨범의 즐겨찾기에 넣어 두면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요.

장비: 아직 몸에 맞나요?

- ☐ **하네스:** 모든 끈 아래로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고, 뒤로 빠져나오지 못해야 해요.
- ☐ **목줄·리드줄:** 외출할 때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해요(3개월 미만을 안고 있을 때는 예외). 위반하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부터 부과돼요.
- ☐ **이동장:** 지퍼·잠금장치가 멀쩡한지, 강아지가 안에서 일어서고 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 **GPS 트래커(쓴다면):** 충전, 요금제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멍냥 팁**
>
> 뒤쪽 **체형·장비 기록지**에 가슴둘레, 목둘레, 몸무게를 적어 두세요. 하네스, 구명조끼, 이동장을 새로 살 때 숫자가 바로 있어요. 이동장 무게 기준은 대부분 '강아지 + 이동장' 합계라서, 이동장 무게도 함께 적어 두면 편해요.

자동차

차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강아지는 운전을 방해하고, 급정거 때는 강아지 자신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제39조 제5항)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고정 방식 고르기

방식	이럴 때 좋아요	알아 둘 점
차량용 안전 하네스	대부분의 강아지, 특히 중·대형견과 고속도로 주행	산책용 하네스는 충돌 힘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고정한 이동장(켄넬)	좁은 공간에서 안정을 찾는 아이, 트렁크 공간이 있는 SUV	끈으로 묶지 않은 이동장은 급정거 때 미끄러지거나 튕겨 나가요.
카시트(부스터)	얌전한 소형견의 짧은 이동, 창밖을 보고 싶어 하는 아이	충돌 시험을 거친 제품이 드물어요. 보호보다는 자리 잡기에 가까워요.
안전벨트 연결 줄만	강아지를 뒷좌석에 머물게 할 때	반드시 하네스에 연결하세요. 목줄에 연결하면 급정거 때 목이 다쳐요.

바르게 설치하기

- [ ] **뒷좌석에 태우세요.**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면 묶여 있어도 크게 다칠 수 있어요.
- [ ] **안전벨트나 차량 고정 고리에 연결하세요.** 헤드레스트 기둥은 고정점이 아니에요.
- [ ] **줄 길이는 짧게.** 앉고 엎드릴 수는 있되 앞좌석이나 발밑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요.
- [ ]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지 마세요.** 날아오는 이물질과 급정거가 생각보다 위험해요.
- [ ] **이동장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끈으로 고정**하고, 주변에 무거운 짐을 풀어 두지 마세요.

익숙해지게 하기

1. 집에서 하네스를 짧게 몇 번 입혀 보고 간식을 줘요.
2. 시동을 끈 차에 함께 앉아 벨트를 채우고, 간식을 주고, 풀어 줘요. 여러 번 반복해요.
3. 동네 한 바퀴부터 시작해 조금씩 거리를 늘려요.

멀미와 쉬는 시간

- [ ] 멀미하는 아이는 출발 직전에 배불리 먹이지 말고, 몇 시간 전에 가볍게 먹여요.
- [ ] 장거리 이동이라면 **적어도 2시간마다** 쉬면서 물을 주고 배변할 시간을 줘요(농림축산식품부 권고).
- [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곳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요. 차 밖에서는 꼭 2m 이내 줄을 하세요.
- [ ] 매번 침을 흘리거나 토한다면 멀미일 수 있으니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기차·버스·지하철

대중교통은 대부분 '작은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동반을 허용해요. 무게는 보통 강아지와 이동장을 합친 기준이에요. 아래 표는 2026년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것이니, 표를 사기 전에 운영사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교통수단	이동장·무게	좌석·요금과 지킬 것
KTX·일반열차 (코레일)	강아지 + 이동장 10kg 이내, 이동장 약 45×30×25cm(세 변 합 100cm 안팎)	좌석 없이 무릎 위나 발밑에 두면 추가 요금이 없고, 옆자리가 필요하면 성인 요금으로 좌석을 따로 사요. 예방접종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SRT	강아지 + 이동장 10kg 이하, 길이 60cm 이내 이동장(약 45×30×25cm 권장)	반려동물용 좌석을 따로 살 수 없어요. 발밑이나 무릎 위에 두고, 통로에서 꺼내면 안 돼요.
고속·시외버스	강아지 + 이동장 10kg 이하, 이동장 약 50×40×20cm 미만	운송사마다 달라요. 승차 전에 운송사와 기사에게 알리고, 옆자리가 필요하면 좌석을 따로 사요. 승차장과 차 안에서 꺼내면 안 돼요.
지하철 (서울 1~8호선 등)	수치 기준 없음. 작은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냄새나 소리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은 피하세요.
시내버스	이동장에 넣은 작은 동물	차 안에서 꺼내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지역·운송사별로 달라요.
택시	수치 기준 없음. 이동장에 넣으면 대부분 가능	기사 재량이라 탑승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반려동물 전용 택시 서비스도 있어요.

타기 전에 연습할 것

- [ ] **이동장 연습은 몇 주 전부터.** 이동장 문을 열어 집 안에 두고, 안에서 간식을 먹고 쉬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처음부터 문을 닫고 들고 나가면 이동장을 싫어하게 돼요.
- [ ] **들고 걸어 보기.** 이동장을 든 채 집 주변을 5~10분 걸어 보세요. 흔들림에 익숙해지고, 보호자도 무게를 실감할 수 있어요.
- [ ] **배변은 타기 직전에.** 역이나 터미널 근처에서 짧게 산책해 배변을 마치고 타요. 이동장 바닥에는 배변 패드를 깔아 두세요.
- [ ] **이동장 밖에 이름과 연락처**를 붙여 두세요.

> **보조견은 달라요**
>
>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 숙소, 식당 출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책의 이동장·무게 기준은 일반 반려견에 대한 것이에요.

> **이럴 때는 다음 기회로**
>
> 이동장 안에서 계속 짖거나 낑낑대고, 숨을 헐떡이며 침을 많이 흘린다면 아직 대중교통이 버거운 상태일 수 있어요. 무리해서 태우기보다 짧은 구간부터 다시 연습하세요.

비행기

제주도 여행처럼 국내선을 탈 때도 반려견은 미리 예약해야 해요. 항공기마다 실을 수 있는 반려동물 수가 정해져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니, 항공권을 살 때 반려동물도 함께 신청하세요.

기내 반입과 위탁(화물칸)

	기내 반입	위탁(화물칸)
무게 기준	강아지 + 이동장 합계. 대한항공·아시아나는 7kg, 저비용항공사는 7~10kg 사이로 항공사마다 달라요.	일부 항공사만 받아요. 받지 않는 저비용항공사도 많아요.
이동장	앞 좌석 밑에 들어가야 해요. 항공사마다 가로·세로·높이 제한이 있고, 부드러운 가방은 눌렀을 때 높이를 따로 보기도 해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새지 않는 단단한 켄넬. 밖에 이름과 비상 연락처를 적어요.
마리 수	보통 승객 1명당 1마리. 같은 이동장에 두 마리를 넣는 예외는 항공사 조건을 확인하세요.	

탑승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 **단두종(퍼그, 불도그, 시추 등 코가 짧은 견종):** 호흡 문제 때문에 화물칸 운송을 받지 않는 항공사가 많아요. 기내 반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 ☐ **맹견, 임신한 동물, 너무 어린 강아지**(생후 8주 이하 등)는 제한될 수 있어요.
- ☐ **건강 상태:** 심장·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노령견이라면 비행이 괜찮은지 수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준비 순서

1. **항공권 예약과 동시에 반려동물 신청.** 온라인으로 안 되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요.
2. **이동장 크기를 줄자로 재서** 항공사 기준과 비교해요. '기내용'이라고 팔리는 가방도 항공사마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3. **강아지 + 이동장 무게를 집에서 재 보세요.** 보호자가 강아지를 안고 체중계에 올라간 무게에서 보호자 몸무게를 빼면 돼요. 공항에서 초과하면 탈 수 없어요.
4. **이동장 적응은 몇 주 전부터.** 비행 중에는 이동장에서 꺼낼 수 없어요.
5. **공항에는 여유 있게.** 반려동물 동반 수속은 일반 수속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 **비행기를 타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
> 몸집이 커서 기내에 탈 수 없거나 화물칸이 걱정된다면, 자동차를 싣고 가는 배편이나 다른 이동 방법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선박의 반려동물 기준도 선사마다 다르니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 **진정제는 수의사와 상의해서만**
>
> 비행 전 진정제는 호흡과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불안이 심하다면 미리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숙소·식당·관광지

'반려견 동반 가능'이라는 말은 곳마다 뜻이 달라요. 소형견만 되는 곳, 마리 수나 몸무게를 제한하는 곳, 객실은 되지만 식당과 수영장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예약 전에 질문 몇 개만 해 두면 현장에서 돌아서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숙소 예약 전에 물어볼 것

- [ ] **몸무게·견종·마리 수 제한**이 있나요? 대형견은 따로 물어보세요.
- [ ] **추가 요금과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 ] **객실 밖 공용 공간**(로비, 식당, 산책로)은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나요?
- [ ] **객실에 혼자 두어도 되나요?**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된다 해도 짖음이 걱정되면 이동장에 넣어 두세요.
- [ ] **가까운 24시 동물병원**을 알려 줄 수 있나요?

식당: 2026년 3월부터 달라진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2026년 3월 1일부터 기준을 갖추고 신고한 음식점·카페·제과점은 개와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식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구에 동반 출입 업소라는 표시가 있는 곳만 해당해요.

- [ ] 반려견이 보호자 곁을 벗어나 돌아다니면 안 돼요. 목줄을 짧게 잡거나 전용 의자·이동장에 둬요.
- [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 [ ] 반려견 식기는 업소에서 손님용과 따로 내줘요. 사람 음식을 나눠 주지 마세요.

국립공원과 공원

- [ ] **국립공원은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돼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원 관리자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 ]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무장애 탐방로 일부), 계룡산(동학사 야영장), 가야산 세 곳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2026년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확대·축소를 결정할 예정이니, 방문 전 공단 누리집에서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 [ ] 도시공원, 해수욕장, 계곡은 지자체마다 규칙이 달라요. 입구 안내판과 지자체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여행지에서 지킬 펫티켓**
>
> - 목줄은 2m 이내, 배변 봉투는 넉넉히. 배설물은 바로 치워요.
> -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요.
> - 낯선 사람이나 개에게 다가갈 때는 보호자에게 먼저 물어요.

멍냥뉴스에서 더 보기

반려견 동반 여행지 193곳을 무게 제한부터 보여 주는 무료 앱 · dogdo209.com/app-royal-retreat-guide

인쇄해서 쓰세요

여행 짐 목록

여행마다 한 장씩 인쇄해서, 가방에 넣을 때마다 표시하세요.

서류

- ☐ 광견병 등 예방접종 기록
- ☐ 동물등록번호 메모
- ☐ 먹는 약 목록과 용량
- ☐ 다니는 병원·24시 병원 연락처
- ☐ 최근 사진(휴대폰)
- ☐ (해외) 건강증명서·검역증명서

신원과 산책

- ☐ 인식표 달린 목줄(연락처 확인)
- ☐ 하네스(사이즈 확인)
- ☐ 2m 이내 리드줄 + 여분 하나
- ☐ GPS 트래커와 충전기(쓴다면)
- ☐ 배변 봉투 넉넉히
- ☐ 밤 산책용 손전등·발광 목줄

이동

- ☐ 차량용 안전 하네스 또는 고정한 이동장
- ☐ 대중교통·항공용 이동장(크기·무게 확인)
- ☐ 이동장 바닥 배변 패드
- ☐ 시트 커버나 큰 수건
- ☐ 차 안에서 씹을 익숙한 장난감

먹이와 물

- ☐ 평소 사료 + 이틀 치 여분
- ☐ 간식
- ☐ 첫날 마실 집 물
- ☐ 접이식 그릇 또는 휴대용 물병
- ☐ 느리게 먹는 그릇·핥는 매트(쓴다면)

잠자리와 날씨

- ☐ 방석 또는 자가발열 매트
- ☐ 쿨매트·해먹 침대(여름)
- ☐ 옷, 발 보호용품(겨울)
- ☐ 구명조끼(물놀이)
- ☐ 수건 여러 장

건강

- ☐ 매일 먹는 약
- ☐ 외부·심장사상충 예방약
- ☐ 반려동물 구급 키트
- ☐ 진드기 제거기 또는 핀셋
- ☐ 발 닦는 물티슈
- ☐ 숙소 바닥용 배변 패드

인쇄해서 쓰세요

체형·장비 기록지

몇 달마다 부드러운 줄자로 재서 적어 두세요. 하네스, 옷, 구명조끼, 이동장을 새로 살 때 꺼내 보면 돼요.

우리 아이 이름

견종 / 믹스

동물등록번호

등록 방식(내장형·외장형)

몸 치수

날짜	몸무게	목둘레	가슴둘레(앞다리 뒤)	등 길이(목~꼬리 시작)

쓰고 있는 장비

장비	사이즈	구입일	마지막 점검	메모(닳은 곳, 교체 시기)
차량용 하네스 / 이동장				
이동장 무게 (빈 상태)				강아지 + 이동장 = _____ kg
산책용 하네스				
목줄과 인식표				적힌 번호 확인:
구명조끼				
옷				
GPS 트래커 (요금제 갱신일)				

참고 자료

이 가이드의 바탕이 된 자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규정과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 가이드와 공식 안내가 다르면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동물을 안고 운전 금지)과 범칙금 안내 — 정책브리핑·도로교통공단
- 동물보호법: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외출 시 인식표·2m 이내 목줄, 분실 신고, 유실·유기동물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 장거리 이동 시 2시간마다 휴식 권고, 고속도로 휴게소 반려견 놀이터 현황(2025년 6월 기준 20곳)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도로공사(2025년 10월 보도)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2026년 3월 1일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와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탐방 시범 운영(북한산·계룡산·가야산, 2026년 말까지) — 국립공원공단, 2026년 10월 보도
- 반려 여행 친화시설 가이드라인(2025년 10월) — 한국관광공사
- 수출 반려동물 검역과 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 운영사 공개 안내

코레일·SRT 반려동물 동반 승차 안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안내,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각 항공사 반려동물 운송 안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반려동물 동반여행 대중교통 이용 방법'. 항공사 기준은 2026년 8월 공개 자료를 함께 대조했어요.

해외 참고 자료

미국수의사회(AVMA): 차 안 온도 상승과 더위 안전 · 미국켄넬클럽(AKC): 차량 안전, 구명조끼와 물놀이, 온열 침대, 열사병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해 녹조와 반려동물

> **멍냥뉴스 동네방네를 소개해요**
>
> 멍냥뉴스 동네방네(dogdo209.com)는 반려가족에게 필요한 공공기관 소식, 지원금·혜택, 법·제도 변화, 안전 경보와 지역 행사를 보호자 눈높이로 풀어 전해요.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이 가이드에는 특정 브랜드나 업체가 나오지 않아요.

© 2026 멍냥뉴스 동네방네 · dogdo209.com. 구독자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인쇄할 수 있으며, 무단 전재와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이 전자책은 일반 정보이며 수의사의 진단·치료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